

2009 결핵환자 신고현황

- 신고 기관별 현황 및 신고 외국인 환자 현황 -

신고 기관별 분포를 보면 보건소 신고 환자는 9,499명(20.1%), 민간병의원 신고 환자는 37,803명(79.9%)이었다. 민간 병원에서 신고된 환자 중 종합병원이 28,800명(76.2%), 병원이 4,468명(11.8%), 의원이 4,535명(12.0%)으로 나타났다.

폐외결핵 환자는 보건소 신고환자의 1.8%(174명)인 반면, 민간병원에서는 신고 환자의 21.6%(8,178명)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서울이 12,320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경기 6,545명(13.8%), 부산 4,482명(9.5%), 대구 3,393명(7.2%) 순이었다. 이는 환자 신고를 병원이 위치한 관할 보건소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신고 환자수가 많으며 이는 실제 거주 환자수와는 차이가 있다.

인구대비 10만 명당 신고 환자수는 대구가 138.8명으로 제일 높았고 이후 강원 133.2명, 부산 129.1명, 대전 126.8명, 서울 122.8명 순이었다.

환자 거주지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신고 환자수는 강원 136.4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전남 132.7명, 전북 126.4명, 경북 124.4명 순으로 신고 지역을 기준으로 한 환자수와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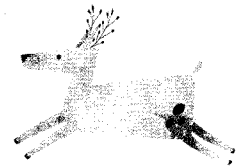
신고환자수가 많은 지역 중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과 같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거주 환자수가 신고 환자수보다 적은 반면,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주 환자수가 신고 환자수보다 더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전체 결핵 환자는 총 47,304명(인구 10만 명당 97.0명)으로 2008년 44,174명(인구 10만 명당 90.9명)에 비해 7.1%(3,128명) 증가하였다. 신환자는 총 35,845명(인구 10만 명당 73.5명)으로 2008년 34,157명(인구 10만 명당 70.3명)에 비해 4.9%(1,688명) 증가하였다. 전체 결핵환자 중 폐결핵이 38,950명으로 2008년 37,307명에 비해 4.4%(1,643명), 도말양성 폐결핵이 15,763명으로 2008년 15,068명에 비해 4.6%(695명)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폐외결핵은 8,325명으로 2008년 6,867명에 비해 21.6%(1,485명) 증가하였다.

연도별 결핵 신고환자 추이

연도 Year	전체 환자 Total case	폐결핵 Pulmonary TB	도말양성 Sputum Smear+	폐외결핵 Extra-pulmonary TB
2001	46,082	41,430	17,098	4,742
2002	43,040	38,121	16,218	4,919
2003	40,500	35,976	15,369	4,524
2004	41,735	37,519	16,264	4,216
2005	46,969	40,614	16,458	6,355
2006	46,284	40,121	15,913	6,163
2007	45,597	39,590	15,420	6,007
2008	44,174	37,307	15,068	6,867
2009	47,302	38,950	15,763	8,352



외국인 환자 유형별 현황

2009년 신고된 외국인 환자수는 637명이며 이중 신고 신환자는 519명 (81.5%), 재발 53명(8.3%), 전입 31명(4.9%), 기타 16명(2.5%), 중단 후 재등록 13명, 초치료실패 5명(0.8%) 순이었다.

폐결핵환자는 520명(81.6%)이며 폐외결핵환자는 117명(18.4%)였다. 폐결핵 환자 중 도말양성 환자는 175명으로 전체 외국인 신고 환자의 27.5%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환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

성별분포는 남자가 347명(54.4%)이고, 여자가 290명(45.5%)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4명(36.7%), 30대가 172명(27.0%), 50대가 69명(10.8%), 60대가 23명(3.6%), 10대가 9명(1.4%), 70대 이상이 5명(0.8%)으로 20~40대 환자가 전체 외국인 신고환자의 83.4%를 차지하였다.

2009년 외국인 신환자 분포

구분	계	신환	재발	초치료 실패	중단후 재등록	전입	만성 배균자	기타
	Total	New	Relapse	T.A.P	T.A.D	T.I	Chronic	Other
전체	637	519	53	5	13	31	0	16
Total Case	<100.0>	<81.5>	<8.3>	<0.8>	<2.0>	<4.9>	<0.0>	<2.5>
폐결핵 Pulmonary TB								
활동성	520	414	44	5	13	29	0	15
Active	<100.0>	<79.6>	<8.5>	<1.0>	<2.5>	<5.6>	<0.0>	<2.9>
도말양성	175	131	21	3	1	13	0	6
Sputum Smear+	<100.0>	<74.9>	<12.0>	<1.7>	<0.6>	<7.4>	<0.0>	<3.4>
폐외결핵	117	105	9	0	0	2	0	1
Extra-pulmonary TB	<100.0>	<89.7>	<7.7>	<0.0>	<0.0>	<1.7>	<0.0>	<0.9>



외국인 환자의 지역별 현황

지역별 분포는 신고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이 18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6명, 경남 23명, 부산 21명, 대구 20명 순이며, 환자 실제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 169명, 서울 166명, 경남 27명, 인천 25명, 충남 2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적 및 연도별 현황

외국인 신고 환자의 국적별 분포는 중국이 전체의 54.6%로 가장 높고 베트남(9.3%), 몽골(6.3%), 필리핀(4.7%), 인도네시아(3.5%) 순이었다. 외국인 결핵환자의 연도별 신고추이는 2001년 152명에서 2009년 637명으로 약 3.2배 증가하였고, 결핵을 제외한 모든 환자 그룹에서 전년대비 신고수가 감소하였다.‡

연도별 외국인 신고환자 추이

연도 Year	전체 환자 Total case	신환자 new case			
		계 Total	폐결핵 Pulmonary TB	도말양성 Sputum Smear+	폐외결핵 Extra-pulmonary TB
2001	152	126	112	38	14
2002	170	149	138	45	11
2003	228	188	176	58	12
2004	315	258	232	71	26
2005	388	312	263	86	49
2006	481	397	349	123	48
2007	588	489	405	136	84
2008	736	587	486	167	101
2009	637	519	414	131	105

* 이 글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행한 「2009 결핵환자 신고현황연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